칼 럼

교육의 두 바퀴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인간은 태어나서 교육에 의해 성장 발달한다. 교육이란 인간유기체가 주변환경과 교호작용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을 말한다. 인간유기체는 인성교육이란 바퀴와 경제교육이란 두 바퀴를 굴리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면 가정에서 인성교육과 경제교육을 부모가 주관하여 고등학교 수준까지 공부했으며 경험의 폭이 넓어지자 학교 교육은 최초로 대학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다음은 중등학교, 다음은 초등학교가 생겼고, 마지막으로 유치원이 학교 교육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은 인간유기체가 교육과정이란 경험의 덩어리를 재구성(再構成)해 가는 과정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경험과 경제교육이란 경험을 재구성해 가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부모에 효도하는 교육이며 경제교육은 가정에서 직업교육이다. 농경사회에서 부모가 하던 농사일을 자녀가 이어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면서 직업이 다양화되었고 전문화되면서 부모의 가정교육으로 충당할 수 없어서 학교가 생겼으며 학교 교육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경제교육의 두 바퀴를 굴리면서 하던 교육을 이어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인성교육은 부모에 대한 효성 심, 국가에 대한 애국심, 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야 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가정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핵가족이 되면서 소홀히 되고 있으며 이를 학교에서 강화해야 한다.

경제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류의 생산과 소비와 유통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인간이 물류와 접하는 모든 활동이 경제다. 경제교육은 진로 교육 직업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성에 따른 진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며 경제인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경제원칙은 최소의 노력과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교육은 물류를 다루는 경제인을 만들어야 하며 근검 저축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슬로건인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으며 학교 교육이 저축을 강조했으며 1인 1통장 교육을 추진했다.

그러나 요즈음 학교 교육은 저축이 없어졌고 소비만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이 자기 돈으로 학용품을 사는 일도 학교에서 일괄 구입 해 학생들이 돈을 쓸 기회가 줄어들었다. 내 것을 만들고 모으는 경제의 기본단위 개념이 사라졌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든 저금통장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될 때까지 모으고 쓰는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인 경험이 앞으로 성장해 쓸 수 있는 지식정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장래 희망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교육을 받을 학교를 선택해야 하며 학교 졸업장보다는 능력과 경력을 우선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교육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보다 교육열이 높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으며 그에 따라 기술개발과 우량기업들이 기업경영을 잘하고 있기때문에 부존자원이 없으면서 기적 같은 성공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러한 저변에는 교육의 힘이 컸다고 본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굳은 신념으로 가난을 극복하는 경제인으로서 집념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 교육이 올바른 경제인의 육성을 못 하고 부모와 국가에 의존하고 복지의 그늘에서 국민이 성장하게 되면 나라는 급속도로 저물어 가는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란 말이 있다. 오늘 교육을 잘 받은 인간의 보람은 백 년 후에 나타나며 오늘 교육을 잘 못 받은 인간 사회는 백 년 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성교육과 경제교육 두 개의 축을 이루는 교육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앞서가는 정보 선진국의 되어야 한다. 교육하는 교육현장에는 실외 환경으로 국기 게양대 정비를 잘해야 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상징으로 국기와 직장을 사랑하고 상징하는 직장기와 경제를 상징하는 기를 게양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차치의 단체장 선거를 6월 1일에 끝내고 민선 제8기 단체장이 7월 1일부터 들어섰다. 학교란 형식적 틀 안에서 학생 교육을 맡은 교육감은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인성교육과 경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가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켜야 하며, 시민교육을 맡은 시·도지사와 시·구·군수들은 도· 시· 구· 군민의 인성교육과 경제교육에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기 고

겨울철 따뜻한 가정을 책임지는 주택용 소방시설

박 남 규 강진119안전센터장

몸과 마음이 차가워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주택에서 난방 기구 사용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기에 각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다.

주택은 시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장소이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재'라는 단어에 경각심은커녕 간단한 소방시설조차도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2) 전국 화재 발생 150,347건 중 주택화재만 39,068건이며, 그 화재 속에서 약 686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3년간(2019~2022) 전라남도의 총 화재건수는 10,225건이며, 그중 주택화재만 1,904건이고 55명이나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화재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주택 '화재'라는 단어에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택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점은 초기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용법으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가정용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시민들을 대피토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용 소화기는 능력 단위 1 이상의 A(일반) B(기름) C(전기) 등 화재에 쓰이는 소화기를 말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화재 발생 시 핀을 뽑고 화점을 겨냥하여 악수하듯이 눌러주면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가 뿜어져 나와 화재를 향해 빗자루로 쓸 듯이 뿌려주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내장된 배터리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는 시민들의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이다. 설날이나 추석에 시골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음식을 태운 기억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켜보는 사람 없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만이 초기에 상황의 긴급함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소화기도 쉽게 화재의 초기진화를 도와줄 수 있으며 감지기 또한 화재가 최성기로 도달하기 전 화재를 미리 인식하여 대피 등을 유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대응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간단한 사용법을 가진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방시설로써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 몸과 마음이 따듯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 고

고수익 투자심리 이용한 '폰지 사기' 주의보

김 창 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폰지 사기는 실제 자본금을 들이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하고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는 더욱 조심하며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 ▲만약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경찰(☎11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고수익 투자 기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고수익을 원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이용해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해 가상자산 관련 유사 수신 행위와 캐릭터 광고 분양권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유사 수신 혐의도 증가하였다고 하니 투자 전 회사의 사업구조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폰지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